2019년 이후 중단 연구학교 재추진

도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연구과제 따라 15개 학교 공모…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등 6가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연구학교 운영을 재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전북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공모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북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중심의 교과교육과정 운영 전략 개발과 적용, 전북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사례 발굴 및 보급, 에듀테크 기반 교실수업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위해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교육부 요청, 2024학년도부터는 교육부 요청 및 전북교육청 자체 지정 연구학교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학년도 교육부 요청 연구과제는 총 6가지로 △다문화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 개발(초 1교, 중 1교)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중 1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운영을 위한 나이스플러스 활용 방안(초 5교)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특수일반교사 협력 방안(유초중고 각 1교)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생진로성장지원 중심 학교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 혁신방안(고 1교) △초등학교 학교급 전환시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초 2교) 등이며 총 15개 학교가 지정된다.

연구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학교현황, 연구학교 운영 찬성 교원 서명부,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 학교당 1연구 과제만 응모 가능하며, 해당 학교 교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서류 면접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학교에는 12월 26일 개별 통보된다.

이번 연구학교 재추진 과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과거 연구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심사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 협력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된 학교,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지가 높은 학교 등'을 선정하고, 운영과정에서는 '연구주제 관련 수업 나눔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합동 보고회 운영, 누리집을 통한 보고서 공유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주현화 과장은 "연구학교는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된다"면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연구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는 지난 24일 전주대학교 천잠관 앞 잔디밭에서 2022년 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절주 캠페인과 보행 중 스마트폰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실시했다.

절주… 스마트폰 잠시 멈춤…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음주 폐해 예방의 달 맞아 캠페인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보건관리학과는 지난 24일 전주대학교 천잠관 앞 잔디밭에서 2022년 11월 '음주 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절주 캠페인과 보행 중 스마트폰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실시했다.

절주 캠페인은 '늘어나는 빈 병 늘어가는 질병'이라는 슬로건으로 학생들에게 절주에 관한 홍보를 통해 알코올의 위험성 알리고 대학 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이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관리학과 2학년 학생들이 기획, 홍보, 진행을 맡았고 절주와 관련된 각종 부스(음주 고글 체험, 절주 퀴즈, 절주 서약서, 알코올 패치 체험 등)를 운영하였으며 많은 학생이 다양한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폭음에 대한 경각심과 절주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

스마트폰 잠시 멈춤 캠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지부와 함께 캠퍼스 내에 학생들이 무의식중으로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걸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 위험성을 알리고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개됐다.

캠페인 총괄을 맡은 김진원 학생은 '보건관리학과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기획한 절주 캠페인에 많은 전주대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 기쁘고 또한 대학의 건전한 음주문화와 보행 안전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절주 캠페인을 지도한 주미현 교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대학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김은규 교수 언론정보학회장 취임

"세대 연결 속에서 비판 언론학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김은규 미디어영상학과장이 제24대 한국언론정보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학회장에 우석대학교 김은규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1년이다.

1988년 2월에 창립된 '한국사회언론연구회'가 전신인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998년 4월 사단법인화된 이후 활발하게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언론과 정보통신 등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관련된 제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교육,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신임 김은규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비판 언론학의 굳건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향후 학회가 진행하는 학술 활동과 조직 활동, 대외 활동을 통해 이러한 비판 언론학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김은규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2007년 우석대학교에 부임했으며, 현재 신문방송사 주간교수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미디어영상학과장을 맡고 있다. /김재훈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참가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 잼버리 지역별 참가비 지원해달라"

서거석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요청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참가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 교육감은 잼버리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소속 기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잼버리 홍보에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전북 지역 잼버리 참가 신청은 3차 모집이 마감된 지난달 4일까지 교직원을 포함해 총 548명으로 집계됐다. 참가 신청 기간은 12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앞서 서 교육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지난 23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여성가족부-전라북도교육청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WOSM)과 한국스카우트연맹(KSA)이 주최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네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간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170여 개국 5만여 명의 스카우트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라면서 "학생들이 지·덕·체를 갖춘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이 이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에너지 절약 추진위 개최

겨울철 추진계획 심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에너지 사용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

도교육청은 하반기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보고 및 겨울철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추진을 통해 지구살리기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하반기 에너지 절약 실천 주요 내용으로는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적정 실내온도 준수 △승용차 요일제 시행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활성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전력 차단, 조명의 효율적 이용, 1~4층 계단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상시 추진한다. 또 겨울 평균 실내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고,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임산부, 장애인 등은 기관장 승인 후 적정실내온도 준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별로 에너지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해 사무실 공간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에너지소비 절감 실천항목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12월 초 자체 점검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형태 재무과장은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각 부서별로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해 에너지 절약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 겨울 에너지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 절약에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비전대, 대학 선교 자문위로부터 장학금 받아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24일, 비전대 대강당에서 대학선교자문위원회로 부터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매주 목요일 마다 드려지는 전주비전대 교직원 예배가 어제는 추수감사예배로 드려졌으며, 장학금 전달식은 예배를 마친 후 이어졌다.

정상모 총장은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특히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웃을 섬기며 가진 것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학습현장에서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내가 쓰는 전기, 내가 직접 만든다'

전주대, '시민이 하는 RE100 - 우아한 재생에너지 생산자들'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에너지 생산 주체 전환 방법 안내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체험을 통해 시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행사가 지난 25~26일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열렸다.

'시민이 하는 RE100 - 우아한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인식개선을 위해 전주시와 전라북도,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가 시민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RE100 시민은 시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40%에 달하는 가정생활 분야의 몫을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을 통해 상쇄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RE100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RE100 시민클럽 △태양광 상담소 △탄소중립 탐험대 △탄소중립 생활 상담소 △유아 태양광 전기 생산 체험 교육 '지구를 지키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감수성을 높이는 '어린이 놀이터' △영상예술전시 '착한 에너지' 등이 운영됐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열로 조리한 간식 등이 제공됐으며, 남녀노소, 가족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휴게공간, 수유실 등의 시민 편의공간을 마련했다.

행사장인 전주시에너지센터는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40%는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자립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모임을 할 수 있는 탄소중립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비전대, 유학생 돕기 사랑나눔 바자회 열어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지난 25일 교내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전주비전대학교 교목실 (교목실장 김미선 교수)주관으로 대학내 누리동에서 진행된 이날 사랑의 바자회에서는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기증한 겨울용 의류, 쌀, 세제, 화장지, 비누, 칫솔, 햄, 김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유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마트에서는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했고, 농협 전북지부, 예은교회, 장동교회 등에서 농산품물을 기증했다.

내부적으로는 직장선교회, 교수협회의회, 직원노조, 조숙진 대외협력보좌관등이 성금을 지원했다.

유학생 '신리후이' 캄보디아(국제협력기술과)는 "올해 더욱 추울 것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겨울 옷과 필요한 생필품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편안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워했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시설분야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시설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전주 동암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2 하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직무교육을 통해 시설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 소통과 교류를 통해 기술직 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미래지향적 시설행정 모색을 통해 학교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은 청렴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문교육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지원팀 조창희 팀장이 강사로 나서 '모두 함께 만드는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 안내했다.

조 팀장은 단계별 추진절차 및 방법, 사전기획 시 고려사항, 사전기획 공간기획 사례와 함께 성공적인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을 위한 제언도 들려줬다.

그는 "미래교육 방향이 없으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서 "미래학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최적의 공간환경 및 특화모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시설과장 직무대리는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래교실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언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